+ 이장섭 · 방송과기술 기자

TVLog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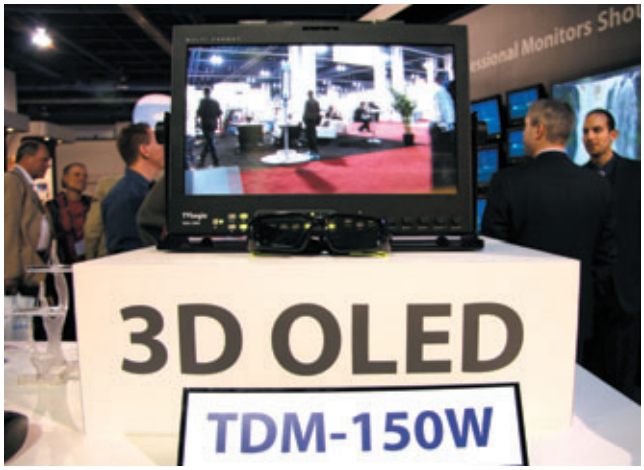
세계 최초 3D OLED 모니터(TDM-150W) NAB 2010에서 3관왕

방송용 모니터 전문업체인 티브이로직(대표 이경국, http://www.tvlogic.co.kr/)은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NABShow 2010에서 'OLED 3D 모니터'가 미국의 방송 관련 잡지사 3곳으로부터 수상했다.

티브이로직의 TDM-150W(OLED 3D 모니터)는 미국의 잡지사인 브로드캐스트 엔지니어링(Broadcast Engineering)사로부터 'Pick Hit Winner 2010' 상을 받았고, TV 테크놀로지(TV Technology)사로부터는 'Star 2010상'을, 그리고 비디오그래피 매거진(Videography Magazine)으로부터는 'The Vidy Award 2010' 상을 연속으로 수상했다.

[NAB 2010에 참가한 티브이로직 부스]

이번에 공개된 방송용 3D 모니터 TDM-150W는 1366×768 해상도의 15인치 AM-OLED 패널을 장착하여 180도에 가까운 매우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며, 빠른 응답속도로 동작 번짐 현상(motion blur)이 최소화된 최상의 화질을 제공한다. 또한,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AM-OLED 패널의 장점을 살려 10만대 1의 높은 명암비와 낮은 소비 전력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.

한편, TDM-150W는 2개의 HDMI와 2개의 SDI 단자를 통해 좌우안용 영상을 각각 입력 받아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의 입체 영상을 출력할 수 있으며, 셔터글라스(Shutter Glass) 방식의 안경을 착용하여 3D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. 120Hz로 구동되는 AM-OLED 패널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각각 60프레임씩의 영상을 배분함으로써 해상도 저하도 없고 깜박임도 없는 깨끗하고 편안한 3D 입체 영상을 제공한다.

티브이로직은 이 밖에도 2D 전용 15인치 AM-OLED 모니터 LEM-150W, 방송과 영화 제작 현장에서 정확한 표준컬러를 보면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급 24인치 LCD 모니터(RGB-LED 백라이트 채용) XVM-245W, 초고해상도 디지털 영화 제작에 필요한 4K(3840×2160) 해상도 지원의 56인치 모니터 LUM-560W 등 최첨단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.